

제21대 대선 이재명 후보 직속 모두의나라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즉시	배포일시	2025년 5월 13일
위원장	고영인	담당자	상근실무자 이진옥 팀장 (010-3906-2561)

이재명 후보 직속 ‘모두의나라위원회, 민주당 원팀실천 및 국민통합 신호탄!

- 오늘(13일) 오후 여의도 용산빌딩 2층에서 출범회의,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 및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 참석
- “이재명의 진짜 대한민국, 모두의나라로 완성!”
- 15일부터 광주, 전주, 부산, 대구, 수원, 춘천, 청주 등 전국순회 본격화

제21대 대선 이재명 후보 직속 모두의나라위원회(위원장 고영인, 이하 위원회)가 오늘(13일) 출범 회의를 열고 활동을 본격화했다.

13일 오후 2시 여의도 용산빌딩 2층에서 개최된 출범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 윤호중 의원이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광온 상임고문, 전해철 상임고문 등 고문단, 자문단, 부위원장, 분과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위원을 위촉하고 이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도 함께 이루어졌다.

‘모두의나라위원회’는 지난 4월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와 겨뤘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슬로건인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에서 명칭을 따왔다. 김 지사의 대선 경선 캠프를 총괄했던 고영인 전 경제부지사가 ‘모두의나라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이끌게 된다.

고영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치의 극단적 진영화, 경제 불평등,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야 한다”라며 위원회 출범 취지를 밝히고 “이재명 후보가 내건 진짜 대한민국은 모두의 나라로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선대위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의 순항은 아름다운 경선이 치러진 덕분이다. 여기 계신 분들이 김동연 지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실천해달라”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어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선거가 보

다 더 통합된 모습으로 치러지게 되어 기쁘다. 진짜 대한민국은 모두의나라이고 진짜 대한민국이야 말로 우리 모두가 꿈꾸는 모습이다 ” 고 밝히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위원회는 10개 분과위원회 4개 본부를 산하기구로 두고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10개 분과위원회 명칭은 기회경제, 기후경제, 돌봄경제 등 김동연 지사가 경선 당시 발표한 5대 빅딜을 중심으로 선정되었고, 4대 본부는 비전, 소통, 네트워크, 뉴미디어로 구성되었다.

위원회 활동은 정책캠페인, 중앙선대위 국민참여본부와의 결합, 지역별 순회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정책캠페인을 통해 경선후보였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책공약을 이재명 후보의 공약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위원회는 국민참여본부와의 캠페인으로 유권자를 폭넓게 만나며 연합정치의 주춧돌을 놓겠다고 밝혔다. 오는 15일부터는 광주, 전주, 부산, 대구, 수원, 춘천, 청주 등 7개 도시를 방문하여 지역 결의대회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퍼포먼스로 갈등과 분열 극복, 통합과 비전 정치 실천의 의지를 다지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끝)

- 행사 사진 별첨 -



